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조 희* · 이 규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후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정체감, 인생관, 사회적 가치관 등이 확립되는 시기로 진리탐구 및 교양교육과 아울러 보다 좋은 직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는 기간이다(Kim, 2000). 즉 이 시기는 가치를 명료화하고 야망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시기로서 성숙, 친밀성, 정체성의 발달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Kwon, Kim, & Kim, 1998). Lee 등(2005)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는데, 계속적으로 학업에 성공하는 경험을 가진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계속적으로 학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비하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서,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아존중감은 어려서부터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으며 형성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형성된다(Ellis, 198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료들도 따르는 지도자가 되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타인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Lee & Lee, 1996).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추구 할 것이므로 자아존중감이 또한 간호전문직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진로정체감이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느냐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환경적인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도 관련이 깊다(Holland, Gottfred, & Power, 1980). 간호학을 선택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는 향후 간호직 업무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면, 간호 전문직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 적십자 간호대학 교수

** 적십자 간호대학 전임강사(교신처자 E-mail: queyoung@hanmail.net)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에 임해야 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경험의 부족, 엄격한 행동 등 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Cho, 1992). 간호교육과정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많은 비중의 임상실습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있으므로 학업 중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흥미를 잃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부적응을 경험하고(Kim, Hur, Kang, & Kim, 2004) 진로정체성 혼란 등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이미 직업적 선택을 하고 들어온 상태이고, 비교적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교수들이 진로지도에 있어서 인생진로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지도하기 보다는 해당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를 전달해 주는 수준의 진로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 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 최근 진로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각 대학의 학생문제 진단연구들(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cent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990)을 보면, 대학생들은 진로 및 장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민의 한 원인으로서 진로 선택 시 자기이해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을 전담하는 부서에 제한되어 진행된 것이므로 간호학 전공 특성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자아존중감이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직업적 선택을 한 간호대학생들이지만, 향후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직업정체감을 높이고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인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조사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정도를 조사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가치관, 인지 등이 개인의 심리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Hudson(1997)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 척도인 진로정체감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경북에 위치한 3개 간호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를 수락한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측정도구는 Hudson(1997)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Inventory of Self-Esteem, ISE)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정도, 심각성,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로서 5점 만점 Likert 채점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긍정적 문항은 15문항, 부정적 문항은 10문항(1,8,9,10, 11,13,16,19,20,24)이며, 부정적 문항은 채점할 때 역환산하여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93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635로 나왔다.

2) 진로정체감 측정도구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직업상황검사)의 하위 척도인 진로정체감 검사로 Kim(1997)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18문항을 Kwon(2002)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 14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척도이며 채점은 역환산하였다(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말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9, Kwon(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8, 본 연구에서는 .8428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8월 22일에서 9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 및 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로 허락한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3개 간호대학 학생의 전수인 450부를 배부하여 420부가 회수되어 93%였다. 그 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41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사용하였다.
- 3)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분포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61.6%, 경기 19.2%, 경북 19.2%로 서울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자 94%, 남자 6%이었다. 연령은 만19세 이하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94.9%로 대부분이었다. 대학입학 전 재수경험여부는 재수경험이 없는 학생이 64.4%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73.8%, 자취나 하숙이 17.1%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 후 만족여부를 알아본 결과, 매우 '만족한다'가 33.4%, '그저 그렇다' 61.6%, '불만족스럽다'가 5%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57.9%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생활동 중 동아리 활동여부에서는 동아리활동을 안하는 학생이 60.1%로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향후 취직하고 싶은 기관을 알아본 결과, 종합병원이 59.9%, 공무원(보건의료) 16.3%, 산업장간호사 1.7%, 외국간호사 19.5%, 기타 2.6%로 병원에 취직을 원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기타학생은 수도자가 포함된 것이다.

〈표 1〉 일반적 특성분포

(n=416명)

변 수	일반적 특성	인원수(명)	빈도(%)
지역별	서울	256	61.6
	경기	80	19.2
	경북	80	19.2
성별	남자	25	6.0
	여자	391	94.0
연령별	만19세이하	163	39.7
	만20세~21세	123	29.3
	만22세~23세	57	13.7
	만24세~25세	42	9.9
	만25세~29세	15	3.6
	만30세이상	16	3.8
결혼여부	미혼	395	94.9
	기혼	17	4.1
	기타	4	1.0
재수경험여부	있다	148	35.6
	없다	268	64.4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307	73.8
	자취나 하숙	71	17.1
	기타	38	9.1
대학입학후 만족도	매우만족한다	140	33.4
	그저 그렇다	255	61.6
	불만족스럽다	21	5.0
종교	있다	240	57.9
	없다	176	42.1
동아리활동	한다	165	39.9
	안한다	251	60.1
향후 취직하고 싶은곳	종합병원(2,3차기관)	249	59.9
	공무원(보건교사)	68	16.3
	산업장간호사	7	1.7
	외국간호사	81	19.5
	기타	11	2.6

2.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변수의 전체 평균값은 〈표 2〉와 같다. 3개 지역 간호대학생들의 전체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8(±.41), 진로정체감 전체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67(±.41)로 나타났다.

〈표 2〉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전체 평균

변 수	평 균	SD
자아존중감	3.38	.41
진로정체감	2.67	.41

3.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정도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

도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다.

3개 지역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보면, 5점 만점에 서울 3.34(±.41), 경기 3.40(±0.38), 경북 3.48(±.42)로 지방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집단 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서울과 경북지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에 입학한 남녀,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3.41(±.31), 여학생이 3.38(±.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19세 이하가 3.33(±.42), 만20세~21세가 3.38(±.38), 만22세~23세 3.35(±.46), 만24세~25세

〈표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정도

변 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점수	t or F	Scheffe	p
		평균±표준편차			
지역별	서울	3.34±.41	3.46	1<3	.03
	경기	3.40±.38			
	경북	3.48±.42			
성별	남자	3.41±.31	.34		.73
	여자	3.38±.41			
연령별	만19세이하	3.33±.42	2.17	1<4	.05
	만20세~21세	3.38±.38			
	만22세~23세	3.35±.46			
	만24세~25세	3.55±.33			
	만25세~29세	3.41±.37			
	만30세이상	3.47±.36			
결혼여부	미혼	3.35±.37	.08		.92
	기혼	3.38±.41			
	기타	3.43±.40			
재수경험여부	있다	3.34±.42	-1.22		.22
	없다	3.40±.40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3.38±.40	0.47		.95
	자취나 하숙	3.39±.41			
	기타	3.39±.38			
대학 입학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3.45±.41	3.12	1>3	.04
	그저 그렇다	3.35±.41			
	불만족스럽다	3.31±.33			
종교	있다	3.37±.40	-.31		.75
	없다	3.39±.46			
동아리활동	한다	3.34±.40	-1.50		.43
	안한다	3.40±.41			
향후 취직하고 싶은곳	종합병원(2, 3차기관)	3.38±.39	.95		.43
	공무원(보건교사포함)	3.31±.47			
	산업장간호사	3.34±.32			
	외국간호사	3.44±.41			
	기타	3.46±.29			

3.55(±.33), 만25세~29세 3.41(±.37), 만30세 이상이 3.47(±.36)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 test 결과 19세 이하 학생들보다 만24세~25세 학생의 자존감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후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는 '매우 만족한다' 3.45(±.41), 그저 그렇다 3.35(±.41), 불만족스럽다 3.31(±.33)로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간호대학생들의 입학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이나 경기지역보다는 경북지역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만24세~25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대학입학 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았다.

4. 일반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정도

3개 지역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다.

4점 만점에 서울지역 학생이 2.64(±.41), 경기 2.72(±.40), 경북 2.71(±.4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있어 간호대학에 입학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점수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2.74(±.39), 여학생이 2.66(±.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의 진로정체감 점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진로정체감 점수는 24세~25세가 2.86(±.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표 4〉 일반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정도

변 수	일반적 특성	진로정체감점수		t or F	Scheffe	p
		평균	±표준편차			
지역별	서울	2.64	±.41	1.74		.17
	경기	2.72	±.40			
	경북	2.71	±.42			
성별	남자	2.74	±.39	.86		.38
	여자	2.66	±.41			
연령별	만19세이하	2.56	±.39	6.10	4,6>1	.000
	만20세~21세	2.66	±.38			
	만22세~23세	2.75	±.46			
	만24세~25세	2.86	±.44			
	만25세~29세	2.71	±.31			
	만30세이상	2.92	±.36			
결혼여부	미혼	2.73	±.39	1.03		.35
	기혼	2.66	±.41			
	기타	2.92	±.26			
재수경험여부	있다	2.70	±.44	1.46		.14
	없다	2.64	±.40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2.65	±.40	.877		.417
	자취나 하숙	2.69	±.42			
	기타	2.74	±.46			
대학입학 후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91	±.37	49.64	1,2>3	.000
	그저 그렇다	2.57	±.37			
	불만족스럽다	2.26	±.34			
종교	있다	2.65	±.40	-.73		.46
	없다	2.69	±.42			
동아리활동	한다	2.66	±.42	-.15		.87
	안한다	2.67	±.41			
향후 취직하고 싶은 곳	종합병원(2,3차기관)	2.68	±.41	4.48	3<4	.001
	공무원(보건의교사 포함)	2.54	±.44			
	산업장간호사	2.23	±.33			
	외국간호사	2.73	±.37			
	기타	2.82	±.38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 결과, 24세-25세의 연령집단이 만19세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진로정체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후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매우 만족한다'가 2.91(±.37), '그저 그렇다' 2.57(±.37), '불만족스럽다' 2.26(±.34)로 매우 만족할수록 진로정체감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향후 취직하고 싶은 기관에 따라 진로정체감점수를 알아본 결과, 외국 간호사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2.73(±.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에 취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2.68(±.41), 공무원(보건의교사 포함)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2.54(±.44), 산업장 간호사 2.2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이를 schfee-test 사후검정 결과, 외국간호사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점수가 산업장 간호사가 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5.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나온 두 변수 즉 연령과 대학입학 만족도 변인을 통제 한 후, Pearson correlations 로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두 변수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316, p<.001).

〈표 5〉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상관관계 n=416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1.00	
진로정체감	.316***	1.00

***p<.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지역, 연령, 입학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지역 보다는 경북지역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평균평점이 높았으며(F=3.46, p<.03), 연령에서는 만 24세~25세 이상 연령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고(F=2.17, p<.05), 간호대학생들의 입학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점수(F=3.12, p<.04)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19세 이하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3.33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전체 평균평점이 3.38이었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남지역 일개 간호대학 122명을 대상으로 한 Park(1999)의 연구에서는 3.08, Lee(2000)의 연구에서는 2.75였고, D시 2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와 Jung(2002)등의 연구에서는 3.03으로 나타났으며, Kim, Lim과 Kim(2004)등 경기지역 2개 4년제 간호대학학생들의 자존감평균은 3.00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대도시 학생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한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해석에 무리는 있을 수 있으나, 지방학생들보다는 대도시 학생 일수록 명문대학에 대한 욕구가 높고 좌절을 더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지방 간호대학 학생들보다는 서울지역 학생들에 대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적용 할 필요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이 24-25세 연령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Lee와 Chung (2004) 연구에서 보여준 26세 이상의 학생이 자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서 보여준 24-25세 연령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세 이하 학생보다 자존감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생활을

경험하거나 혹은 직업전환을 위해 간호학을 선택한 사람들로써 자기인식이 명확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높고, 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목표를 다시 세워 인생을 설계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정체감정도를 알아본 결과, 연령, 대학입학 만족도, 향후 취직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자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간호직에 대한 건강한 자기확신정도는 향후 직업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청년실업문제와 맞물려 취업전망이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타 학과에 비해 간호대학 진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남학생의 증가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만 24세~25세 연령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았으며(F=6.10, p<.000), 대학입학사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 평균점수(F=49.64, p<.000)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향후 취업여부에서는 외국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평균점수(F=4.48, p<.001)가 가장 높았으며, 산업장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자존감이 가장 낮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남학생이 2.74, 여학생이 2.66으로 남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북서부와 중서부에 위치한 3개 대학 간호학 전공 신입생을 대상으로 남녀 성(gender)에 따른 간호사 직업선택에 관한 Leehum과 Devon(2005)의 연구에 있어서도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취업 가능성과 수입과 같은 생존 욕구를 기반으로 한 동기 때문에 간호직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남학생들은 간호사 직업선택에 있어서, 목적이 뚜렷하며, 적성에 맞아 오는 경우가 여학생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취업가능성, 수입, 안정성과 같은 생존욕구 측면을 더 고려하는 것(t=6.89, P<.0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 입학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Ko(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온 대학입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외국간호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선택 및 직업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 및 자기이해가 뚜렷하고 동기가 뚜렷한 학생일수록 높은 진로정체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진로수준을 향상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필요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평균 평점은 2.67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Kim, Lim과 Kim(2004)등 경기지역 2개 4년제 2,3,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2.87점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전 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한 Lee(2004)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진로결정 점수가 2.85점,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2.69점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 점수가 평균 2.67로써, 간호대학생을 연구한 Kim, Lim과 Kim(2004)의 연구 평균 2.87보다 낮고, 타 일반대학생들을 연구한 Lee(2004)의 연구 중 자존감이 낮은 학생의 평점인 2.69 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이제 대학을 갓 입학한 1학년이고 설문조사 시기가 겨우 한 학기를 마친 상태여서 아직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자기 확신이 시기적으로 세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3년제 간호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4년제 간호학과나 타 전공학생에 비해 간호직업에 대한 특별한 동기부여 없이 수능 성적에 맞추어 입학한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입학하고 보니 꼭 짜여진 간호학 교육과정에 이론과 실습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자신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직 현실에 와 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업정체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도 높게 나타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Tylor와 Betz(1983), Lee(1997), Kim, Lim과 Kim(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Kim, Lim과 Kim(2004)의 연구에서

는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태도에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Lee(200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높은 진로결과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진로교육을 통한 자기이해를 촉진시키는 상호작용 효과를 갖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인 특성 이면서 동시에 상황적 변인으로(Rosenberg),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필수적이며 진로결과와 같은 선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의 증진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미 선택한 신입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신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아증진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자 서울, 경기, 경북에 소재한 3개 간호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8월 22일에서 9월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는 연령과 대학입학 만족도 두 변인을 통제한 후,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Hudson(1997)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Inventory of Self-Esteem, ISE)와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직업상황검사)의 하위 척도인 진로정체감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서울, 경기 소재 간호대학 학생들보다 경북에 소재한 간호대학 학생들이 더 높았으며 ($F=3.46, p<.03$), 연령군에서는 만 24세-25세 이상의 연령이 높게 나타났고($F=2.17, p<.05$), 입학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F=3.12, p<.0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평균평점은 2.67이었으며, 진로정체감은 만24세~25세 연령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6.10, p<.000$), 입학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F=49.64, p<.000$) 더 높았다. 또한 향후 취업여부에서 외국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F=4.48, p<.001$)이 진로정체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장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자존감이 가장 낮았다. 세 지역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남학생이 2.74, 여학생이 2.66으로 남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43, p<.001$).

2.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간호대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바로 정확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이 입학 후 만족감을 추구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간호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자존감향상 커리큘럼의 마련과 아울러, 간호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로 남학생들의 간호직 진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녀학생들의 간호대학 입학동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Bloom, B. S., Bruck, M. (1971). *Handbook of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 Eiis, L. S. (1980). An investigation of nursing students self-concept, levels. *Nur Research*, 29(6), 389-390.
- Holland, J. L., & D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 situation*. Palo Alto. CA :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 V publishing Co.
- Cho, H. (1992). Studuy on stress which nursing students-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s. *J. Redcross of College*, 14, 64-78.
- Kelly, B. (1962). The professional sief-concept of nursing undergraduates and their perceptions of influential forces. *J Nurs Education*, 31, 121-125.
- Kim, B. W.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C. J., Hur, H. K., Kang, D. H., & Kim, B. H. (2004). Effects of psychosocial stress management on stress and coping in students nurses. *J Korean Acad of Adult Nurs*, 16(1), 90-101.
- Kim, J. S. (2000). The effect of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f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 9(2), 209-219.
- Kim, M. A., Lim J. Y., Kim, S. Y., Kim, E. J., Lee, J. E., & Ko, Y. K. (2004). Influence factor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 Korean Acad of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 13(4), 383-391.
- Koh, H. J. (1992).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st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chool.
- Kwon, M. K., Kim, N. S., & Kim, H. W. (1998). *Campus life and health management*. Seoul : Hyunmunsa.
- Kwon, Y. H. (2002). *Effect of ready planned self-esteem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f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Daegu.
- Lee, H. L., & Lee, H. J. (1996). A study on self-esteem according to grade and chang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Kyung-in nongip*.
- Lee, H. K. (2000). The effects of image psychotherapy on self-actualiza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 9(1), 20-33.
- Lee, S. J., Park, S. S. (2005). *Educational Psychology*.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Seoul.
- Lee, S. H., & Chung, S. E. (2004). A study on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women health*, 5(1), 133-151.
- Leehum, Z., & Danon, M. B. (2005). Gender and students' vocational choice in entering the filed of nursing. *J Nurs Outlook*, 53(4), 193-198.
- Students Guidance and Counseling Cent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 Campus (1990). *Journal of students guidance and counseling*.
- Jung, S. O. (2004). *A study on the of growth program with MBTI for improving self-esteem*. Master's thesis, SungSil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2). A study on self 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 11(4), 621-631.
- Park, M. H. (1999). A study on self-esteem and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of Adult Nurs*, 11(1), 96-106.
- Rosenberg, Morris (1985). *Self conce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self* ed. by Rovert L. Leahy, Academic Press : New York
- Lee, S. Y. (2004).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elf esteem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the undergraduate.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Cho, Hee(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Lee, Gue Young(Full-Time Lecture,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th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ample consisted of 416 junior nursing students of diploma programs in the cities of Seoul and Kyung-gi area, and Kyungbook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the program of SPSS WIN 11.5. **Results:** Self esteem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udents attending rural school than in those attending urban school ($F=3.46, p<.03$), in those between the age of 24-25 years than in the rest ($F=2.17, p<.05$), and in those satisfied on admission to nursing school than in those less satisfied ($F=3.12, p<.04$). Career ident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tudents between the age of 24-25 years than in the rest ($F=6.10, p<.000$), and in those satisfied on admission to nursing school than in those less satisfied ($F=49.64, p<.000$).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between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revealed that career ident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self esteem ($r=.316,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programs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and further research is suggested on the development of such program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esteem, Career identify